



10 중문천 학술 탐사

중문천 유역 주민들의 한해살이

김 재 경

제주돌문화공원

I . 1월

1. 설날

1) 멧질옷

중문마을 주민들은 설날을 명절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는다. 그러므로 1960년대까지는 초겨울부터 설 명절을 준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멧질 옷’이라 불리는 설빔을 준비하는

것이다. 보통 아이들의 옷을 준비하기 보다는 시아버지 옷, 남편 옷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옷감은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명주나 무명을 이용하였다. 중문마을에서는 11월이 되면 무명을 짜고, 12월에 바지저고리를 지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옷일 경우에는 반물·붉은 물·푸른 물·검은 물 따위의 물을 들여 곱게 단장을 하여 주었다.

2) 차례

중문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정월명절날’이라 부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기 위해 제물(祭物)을 준비한다. 1970년대 이전까지 제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주(祭酒)를 빚는 일이었다. 제주는 주로 청주로 사용하였는데 설날이 다가오면 좁쌀을 갈아다가 오메기떡(좁쌀떡)을 만들어 누룩에 버무려서 술독에 담아두면 찌꺼기는 아래 갈아 앉고 위에는 청주가 떠 올라온다. 위에 맑은 것은 청주, 가라앉은 건 탁주다. 청주는 제주(祭酒)로 쓰고 탁주는 세배 온 사람들을 대접한다.

제물 마련이 끝나면 집집마다 차이는 있으나 집안을 지키는 문전신(門前神)에게 ‘문전제’를 먼저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어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낸 후 이후 웃어른에게 세배를 올린다. 차례가 끝나면 간단히 음복을 한 후 친척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러 가면서 집집마다 들러 세배를 한다.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마을 어른, 형제, 오랜만에 만나는 집안사람들끼리도 세배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배는 정월보름까지도 계속 된다고 한다.

2. 공동묘지 토신제 지내기

하원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정일(初丁日)이나 해일(亥日)에 공동체 제의인 ‘공동묘지 토신제’를 지낸다. 마을주민들을 이를 ‘토신제’ 또는 ‘산제’라고 부른다. 원래 토신제(土神祭)는 발인하기 전에 산에 가서 토지신(土地神)에게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 말인데 하원리에서는 1990년대부터 마을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매년 마을 공동으로 지내기 때문에 집안에 상이 나도 토신제를 따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3. 산신맹감 지내기

산신제를 ‘산신맹감’ 또는 ‘드룻맹감’이라 한다. 산에서 노루나 꿩 사냥을 하는 집에서 3년에 한번 정월에 들에서 지냈는데 현재 지내고 있다는 제보는 들을 수 없었으며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사라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산신맹감 곳을 할 때는 사만

이본(명감본풀이)을 본다. 들판 깨끗한 곳에가서 산신명감 끝난 다음, 집안에 굿(멩감)을 청해 온다. 집에 모시고 와서 문전제, 조왕제를 지낸다. 제물은 다른 제와 다르지 않지만, 돌래떡을 크게 만들고, 손메도 넉넉히 담아 9기를 만들며 산메 3개를 찐다. 좁쌀 메를 찌거나 토신제 할 때는 드룻멩감보다 더 명심한다. 토신제는 정성이 조금만 부족해도 즉시 그 자리에서 벌을 받기 때문에 정성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4. 문전제(門前祭) 지내기

문전제는 ‘문전코사’, ‘문전철같이’라고도 불리는데 집안을 드나드는 곳에 좌정하여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문전신(門前神)에게 지내는 의례이다. 문전제는 한 해 동안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벌이는 무속의례로써 대개 정월에 택일하여 심방(巫堂)을 빌어 행하는데, 정월에 지내지 못하면 3월로 넘기며 저녁에 준비하여 밤이 깊어서 마친다. 제의 절차는 초감제, 문전제, 상당숙임, 액택이, 도진의 순서로 무속의례의 일반적인 순서로 진행한다. 향언에 따르면 “문전 모른 공사가 엇곡, 조왕 모른 축물이 어서”(문전 모르는 공사가 없고, 조왕 모르는 축물(祝物)이 없다)라고 하여 문전신과 조왕신을 가신(家神) 중에 으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문전제라고 하지만 문전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신인 조왕, 칠성, 안네 등이 모두 기원대상이 된다. 또한 인근마을인 대포리에서는 문전제를 ‘장구코사’라 부른다고 한다.

5. 신구간(新舊間)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까지를 ‘신구간(新舊間)’이라 한다. 이때는 지상에 내려와 세상을 관장하던 신들이 한해의 임무를 다하고, 옥황상제에게 지난해의 일들을 보고하고 새해의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신들이 없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믿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축, 수리, 이사 등을 한다. 특히, 중문마을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믿음이 남아있어 이사는 가급적 신구간에 한다고 전한다.

6. 입춘(새철 드는 날)

입춘은 새해의 첫 절기(양력 2월 4~5일경)로 중문마을에서는 ‘새 철 드는 날’이라고 부른다. 입춘날이 되면 대문이나 기둥에 입춘축을 써서 붙여 한해의 복을 기원한다. 입춘축

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대길 건양다경 래백복(立春大吉 建陽多慶 來百福)이라 적는데 이것을 집안 곳곳에 붙이면 한해 운수가 좋고 잡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7. 대보름

대보름은 한자말로써 상원(上元), 상원절(上元節), 원소(元宵), 원소절(原宵節)이라고 하며 보통 대보름 혹은 대보름날이라고도 한다. 이는 음력 초하룻날부터 열 다섯째 날을 가리키는데, 대보름의 대(大)는 그 해에 맨 처음으로 제일 큰 달이 뜨기에 붙인 말이다. 이 날은 1년의 첫 보름이라 특히 중요시하고, 그 해의 풍흉(豐凶)과 신수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쳤다. 또 새벽에 귀밝이술을 마시고 부럼을 깨물며 약밥·오곡밥·복쌈·나물 등을 먹는다.

특히, 보름에는 ‘곤침떡점’이라 불리는 떡점을 치는데 시루떡(곤침떡)을 찌서 그 해에 운수가 좋은지 궂은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전날인 정월 14일 좁쌀가루를 준비하여 보름날 아침 시루떡을 찌는데 맨 밑에는 가장(家長)의 이름을 쓴 종이를 넣고 그 위로 가족들의 이름을 쓴 종이를 칸마다 넣어 점을 치는 것이다. 떡이 익지 않고 부서지면 그 해 운수가 나쁠 것으로 믿고 그 떡을 밖에 내다 버려 까마귀가 물어가게 한다. 까마귀가 물어 가면 그 해 액운이 떠나간다고 믿는다.

8. 도채비 방쉬(도깨비 액막이)

중문마을 주민들은 액막이를 ‘방쉬’라고 부르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쫓기는 사람(환자)이 있으면 심방을 데려다 푸닥꺼리(푸다시) 굶을 한다. 그리고 그 액운을 멀리 떠나 보내기 위해 채룽(차룽)에 글자를 적고 함께 제물을 담아 들에 가서 버린다. 이렇게 버리는 것을 ‘배송’한다라고 부른다. 이 배송 차룽에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수수밥, 메밀범벅, 보리밥, 조밥, 오곡밥 등을 넣는다.

9.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겨울철 아이들의 대표적인 놀이이기 때문에 굳이 정월 세시풍속으로 볼 수는 없으나 중문마을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선달 보름에서 정월 보름까지 날리는 연을 띄워 보내면 새해의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정월 보름날이 되면 지금까지 날려 온 연을 멀리 띄워 보내는데 이 때에는 연에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고 “관송(관청에

걸어진 일), 입송(관속에 들어갈 일), 하란(어떤 난에 들어갈 일), 삼재(三災), 팔난지액(八難之厄) 등 일절을 소멸 하옵소서”라고 써 붙여 연줄을 끊어 멀리 날려 보낸다고 한다. 이 때 연이 멀리 날아갈수록 그 연의 주인은 한 해의 운수가 좋으며 이렇게 연에 불을 붙여 날려보냄으로써 한 해의 액을 막는다고 믿었다.

II. 2월

1. 영등굿

영등굿은 음력 2월에 제주도를 찾아오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굿을 말한다. 중문마을에서는 영등굿을 ‘영등제’, ‘영등맞이’, ‘영등손맞이’ 등으로도 부른다. 영등신은 일반적으로 음력 2월 초하루에 제주에 들어와 보름에 섬을 떠난다고 여기므로 2월 초하루에는 ‘영등 환영제’를 지내고 보름 뒤 나갈 때에는 ‘영등 송별제’를 지낸다고 한다. 그러나 영등제는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중문마을에서는 제보를 들을 수 없었지만, 새롭게 봄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마을 공동체에서 풍농과 풍어를 위해 드리는 의례인 영등굿은 제주도 전역에서 농업과 어업을 포함한 생업의 풍요를 위하여 행해지던 중요한 세시풍속 중 하나이다.

2. 방애불(방앗불) 놓기

중문마을에서는 2월이 되어 땅에 눈이 녹으면 목장에 불을 놓아 풀을 태운다. 이를 ‘방애불(방앗불)’이라 하며, 방애불을 붙여야만 진드기와 해충들의 알이 죽어 풀이 더 잘 자라며 해충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Ⅲ. 3월

1. 시제(묘제) 지내기

시제(묘제)는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묘제를 지내는 날은 주로 종친들끼리 의논해서 제일(祭日)을 잡는데, 정유일(丁酉日)이나 정사일(丁巳日)에 지내는 거나 청명(淸明)을 택하여 4월에 지낸다. 청명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근래들어서는 외지에 나가있는 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휴일을 택하여 지내기도 한다고 한다.

시제의 경비는 보통 문중에서 만들어 놓은 기금을 활용하는데 문중의 토지에 소작료를 통해 확보하거나 집안마다 거출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제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기제사 때와 다르지 않지만 묘제를 지내기 전에 토신제를 먼저 지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토신제는 봉분의 용미 오른쪽 구석에 묘제와 같은 제물을 진설하고 ‘토지지신위(土地之神位)’라는 지방을 써서 붙이고 한 사람이 한 번만 잔을 올리는 단헌단작(單獻單酌)으로 지낸다.

2. 한식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현인(賢人)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서 죽은 날이라 한다. 한식은 설, 단오, 추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명절이나 일제강점기 이후 가장 먼저 사라진 명절이다. 중문마을 대부분 가정에서 이날 치러지는 의례는 없지만 집안에 따라서는 ‘문전맹질’이라 하여 해 뜨기 전에 간단히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날은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제물은 전날 미리 마련해 두며 이날은 찬 음식을 먹는다.

3. 보리고개

1970년대 이전까지 매해 3월 경은 ‘보리고개’라 하여 먹을 것이 귀했던 시기이다. 이때 주린배를 채우기 위해 나물을 캐어다 먹거나 보리범벅을 만들어 먹었다. 나물은 주로 ‘드룻나물’, ‘새나물’, ‘드룻마늘(꿩마늘)’등을 캐다가 삶아 먹었고 덜 익은 보리를 베어다가 그을려서 가루를 내어 범벅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IV. 4월

1. 초파일

중문마을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믿는 종교는 불교이다. 따라서 이날이 되면 인근 절을 찾아가 불공을 드리고 등을 단다. 독실한 신자들은 초파일 전날부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초파일에 애기들 머리를 깎아 주기도 하는데 특히 애기의 배안의 머리를 깎아주어야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잘 자란다고 여긴다.

2. 목화 파종

매년 4월에 목화를 심는 것은 큰 행사중 하나였다. 중문마을에서는 1960년대까지 집집마다 면화를 심어 옷감을 장만하였다고 한다. 지금처럼 시장에서 옷을 구입하기 이전에는 집집마다 누에치기와 목화, 삼을 재배하여 명주, 무명,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농사일을 할 때 간편한 일옷으로 감물을 염색해서 갈중이(갈옷)를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V. 5월

1. 단오

중문마을에서는 음력 5월 5일은 단오(端午) 맹절이라 하여 설, 한식, 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로 생각하여 명절 차례를 지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더라도 단오에는 잎보리(섭푸리) 해다가 올려서 차례를 지낸 적도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단오 풍습이 급격히 약화되어 현재는 단오 차례를 지내는 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약초 캐기

단오 무렵이 되면 여러 가지 약초를 캐다가 말려두었다가 비상약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풀이 가장 약효가 좋아 새벽 일찍 이슬이 마르기 전에 여러 약초를 캐어 말려 저장해 두었다고 한다.

3. 보리개역 만들기

단오 무렵이 되면 보리 수확철이다. 보통 4월부터 보리 수확에 들어가지만 철이 늦게 들어 5월에 망종이 들면 5월에 보리를 베기도 한다. 개역이란 보리를 솥뚜껑에서 볶아 그 래(맷돌)로 갈아 만든 가루로 볶은 보릿가루로 미숫가루와 비슷하다. 비가 오면 보리를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는데 이를 '개역'이라 한다.

4. 쉰다리 만들기

일꾼을 빌어 일하게 되면 대접할 게 없으므로, 단술(쉰다리)를 장만했다가 대접한다. 보리밥을 한술 해 두었다가 누룩을 넣어두면 익어서 쉰다리가 된다. 쉰다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집에서 먹는다. 쉰다리는 술과는 달리 조금은 짧고 새콤해지면 먹는다. 누룩에 버무려 두면 조금 밥이 쉬어 쉰다리가 되는데 저녁에 장만하면 내일이면 보글보글 된다. 쉰다리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름 간식으로, 5~6월 보리 수확 후에 만든다.

VI. 6월

1. 닭 잡아 먹는 날

스무날은 닭 잡아 먹는 날이다. 6월이 되면 대개 닭을 잡아 먹지만, 모든 집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편안하게 사는 집에서나 닭을 잡아 먹었다.

2. 마불림제

하원리 비바리당·허개동산 아드렛당이 있으며, 17일에 마불림제를 한다. 본향 제일날 본향에 갔다가 그날에 동의본향(토산당) 아드렛당에도 갔다 오는 것이다.

3. 꿩사냥

6월에 막 더울 때 꿩사냥을 많이 한다. 꿩사냥은 주로 개를 데리고 하는데, 개가 꿩을

쫓아 날게 하면 더운 때라 썩이 멀리 날지 못한다. 그때 개는 썩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달려가 잡는다. 썩은 6월에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멀리 날지 못한다.

4. 자리잡이

자리잡이는 음력 4월말에서 7월 이전까지 진행된다. 자리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잡는 어종 중 하나이다. 자리잡이는 ‘테우’라 불리는 뗏목배를 이용하였는데 자리를 잡는 그물은 사둘이라 불린다. 이렇게 잡은 자리는 자리젓을 만들어 보관해두고 먹는데, 자리젓을 만드는 방법은 적당한 크기의 자리를 골라 자리와 소금의 비율을 4:1로하여 버무린 자리를 항아리에 넣고 소금을 살짝 끼얹고 광목 형겅으로 덮어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 둔다. 그렇게 4 ~ 5개월 숙성시킨 후 꺼내어 풋고추·고춧가루·참깨·참기름·마늘·파 등을 적당히 넣고 무쳐 먹는다.

자리그물의 어로 대상은 자리돔이나 더러 다른 물고기들을 잡는 수도 있다. 중문마을에서는 벤자리와 고동베기(젯방어)를 잡기도 한다. 자그마한 벤자리를 알눈이라고 한다. 음력 3월경에는 알눈이, 장마철에는 좀더 큰 벤자리가 무리를 이루어 다닌다. 자리그물을 드리울 때, 이 물고기들이 자리돔을 쫓아 그물 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잡히는 수가 있었다.

VII. 7월

1. 칠석

음력 7월 7일은 양수인 홀수 7이 겹치는 날이어서 길일로 여긴다. 중문마을에서는 칠석과 관련된 세시풍속은 없다. 다만, 주민들은 칠월칠석날 밤에 견우와 직녀가 일년 만에 만나 서로 눈물을 흘리는 날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믿는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이날을 ‘임금 대왕 돌아가신 날’이라 하며 이날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2. 백중

일반적으로 백중은 칠월 보름이나 중문마을에서는 이보다 하루 앞선 음력 7월 14일을 백중이라 한다. 구전(口傳)에 따르면 “제주도의 목동이 곡식과 가축을 지키려고 옥황상제

의 명을 어겼는데, 이로 인해 노여움을 받아 스스로 자결하였다. 그 후 농민들이 그가 죽은 날인 음력 7월 14일을 백중일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어 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하며 그 제사가 곧 백중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맞이는 ‘처서 물맞이’와 ‘백중 물맞이’가 유명하다. 중문마을에는 해안가 폭포에 가서 물맞으러 다녔다고 한다. 백중에 즈음해 물맞으러 가는 것은 지친 몸을 쉬는 ‘피서’의 의미가 크나 백중에 물맞이를 하면 혈액순환에 좋아 잔병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3. 메밀 파종

7월이 되면 메밀 파종을 한다. 중문마을 인근에는 벼농사도 가능했기 때문에 메밀이 중요한 작물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30여 년 전까지 메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밀은 척박한 토질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며 메밀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VIII. 8월

1. 모듬벌초

제주지역에서는 벌초를 보통 소분(掃墳)이라고도 한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음력 8월이 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서 벌초를 하는데 추석 전까지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8월 초하루는 ‘모듬벌초’라고 해서, 윗대 조상의 묘에 친족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벌초를 한다. 특히, 이 날은 서귀포 지역 대다수 학교도 임시 휴교일로 정한다. 이것을 ‘벌초 방학’이라 부르는데 학생들도 조상을 모시는 벌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2. 추석

중문마을에서는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을 설,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명절의 하나로 생각하여 명절 차례를 지냈다. 그러나 근래 들어 한식, 단오의 명절 차례는 지내는 가정의 거의 없지만 추석의 차례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중문마을 인근의 ‘베릿내오름’ 북동쪽 기슭에 ‘노는 산’이란 곳이 있는데, 이 산은 대포에 거주하는 원씨 조상의 산소이다. 이곳을 ‘달놀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매년 추석날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차례를 지낸 후 처녀 총각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동네끼리 한데 어울려 여자들은 강강수월래, 남자들은 무릎싸움(닭싸움)을 하며 지냈다고 한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추석에 고향을 찾아온 젊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녁에 ‘노는 산’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IX. 9월

1. 동백기름(뚝박지름) 짜기

8월 보름이 지나면 동백나무 열매가 익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동백나무의 씨앗을 말려서 짠 기름은 동백기름이라 한다.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냄새도 나지 않고 잘 마르지도 않아 머리단장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비상약으로도 사용하였는데 가슴 아픈 데나 위장병에 동백기름이 좋다고 한다.

2. 철갈이

‘철갈이’란 ‘계절을 바꾼다’는 뜻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집안의 가신들에게 행하는 제의(祭儀)라는 뜻이다. 철갈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나 정월달과 음력 9월달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례이다. 정월 철갈이는 한 해 가족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심방을 빌어 제의를 벌인다. 음력 9월에 행하는 철갈이는 새로운 곡식을 올리는 의례로 인간에게 장수와 복을 가져다 준다는 ‘뱃칠성’을 위주로 하여 제의를 하면서 다른 가신들을 함께 모셔 기원한다.

X. 10월

1. 귀표고사(牛馬耳標: 쉬귀패)

‘귀표고사’는 ‘방동코사’라고도 불리는데 처음으로 방목을 하게 되는 1년생 소와 말에게 귀표를 하면서 지내는 간단한 의례이다. 귀표고사는 주로 방목을 앞둔 10월의 상사일(上巳日)에 했다. 귀표는 방목을 할 때 우마가 섞이더라도 자기 소유의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귀표고사는 귀표를 단 날 우마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치르는 의례인데 제물로는 ‘산디돌래(돌래떡)’나 ‘조오매기(좁쌀로 만든 오매기떡)’ 등을 준비한다.

XI. 11월

1. 팔죽 쑤기

동지(冬至)는 양력 12월 29일로,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중문마을 사람들은 “동짓날은 팔죽을 쑤어 먹는 날”이라고 한다. 그러나 11월 초에 동지가 들면 ‘애기[초순]동지’라 하여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팔죽을 쑤지 않고 종[중순]동지에 팔죽을 쑤다. 동짓날 팔죽을 쑤어 집 어귀나 골목길에 뿌리면 액막이가 되어 잡귀가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붉은 팥은 사(邪)한 것을 막는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2. 장 담그기

중문마을에서는 음력 10월에 메주를 만들어 두었다가 동지에 장을 담는다. 이 시기에 장은 담아야 장이 맛이 있다고 한다. 장 담그기는 겨울철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 장 담그기에는 여러 금기사항이 있는데 콩을 삶는 날부터 주부의 생기복덕에 맞추어 용·뱀·쥐·범날은 피하고, 개·닭·염소·토끼·말날은 택한다. 메주와 소금물, 빨간 고추, 숯, 그리고 장을 담근 독의 언저리에 왼새끼(左繩)를 둘러 감는다. 장이 익을 때까지 풀지 않는데, 이것은 상중(喪中)인 사람이 보거나 부정(不淨)을 미리 피하고자 하는 금줄인 것이다.

XII. 12월

1. 납향엿 만들기

동지로부터 세번째 미일(未日)은 납향날(蠟享日)인데 이날에는 엿을 만든다. 납향엿은 지저분한(긋인) 허물에 바르면 낫는다고 하여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쓰기도 한다. 조밥을 해서 골(엿기름)을 섞어 골감주를 만들어 다음날 술에 놓아 채로 걸러서 뭍은 물처럼 된 것을 오래 달이면 엿이 되는데 이곳에 여러 가지를 넣어 깨엿, 쨍엿, 닭엿, 호박엿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2. 지붕잇기

1970년대까지 중문마을 대부분의 주택은 초가였다. 초가의 지붕은 띠(茅)로 1~2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덮어야 하는데 그 시기는 보통 음력 10월에서 12월초까지이다. 이 일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므로 이웃과 더불어 수눌음[품앗이]으로 한다. 띠밭[새왓]에서 띠를 베어다 말려서 지붕에 덮고 줄을 꼬아 가로 세로로 엮어 맨다.

[참고문헌]

-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진성기. 『제주의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진성기. 『제주의 세시풍속』. 디딤돌.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2003.
좌동렬. 「제주지역 목축 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서귀포시. 『서귀포시지』 하. 서귀포시. 2001.
제주도. 『제주도지』 7. 제주도. 2006.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민속학회. 『민속놀이 축제 세시풍속 통과의례』. 민속원 2008.